

## <천도교신문> 창간 축하 메시지

<천도교신문> 창간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천도교는 민족의 고유한 신앙과 정신을 이어오며 근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왔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통하여 조선의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고, <만세보>라는 일간지를 발간하여 우리 민족의 계몽에 앞장섰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를 지나며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은 민족사의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지만, 천도교가 민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문명과 역사를 창조하여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하는 역할은 매우 막중할 것입니다. 나아가 종교적인 책무를 함께 숙의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천도교월보>를 <천도교신문>으로 재창간하고, 새로이 모든 미디어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천도교가 중흥할 계기를 맞이함이라 하겠습니다.

<천도교신문>의 창간을 거듭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종교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 민족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독도 방명록 문안>

1. 독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올바른 역사인식이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입니다.
3.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독도를 보며, 평화로운 세계를 기원합니다.

## <독도 인터뷰 문안>

### 1. 방문 목적과 관련하여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독도 방문은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주권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또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독도에서 외롭게 영토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독도경비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 2. 독도에 대한 소감

작은 두 덩이의 돌섬에 불과하지만 이 섬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비록 작은 돌섬에 불과하지만 독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 3. 향후 기원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제되어야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평화와 번영의 길에 함께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함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가 평화롭게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